



주안에서 몸뚱이 교회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는 이곳 멕시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작은 만남과 섬김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3일동안 아이들을 위한 VBS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을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여러 활동과 교제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고 선물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중심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 믿는 자 안에 생명으로 거하심을 나누는 귀한시간이었습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만, 그 씨앗에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밝게 웃으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 아이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훗날 한 가정과 마을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멀리서 함께 기도해 주시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항상 저희와 이곳의 사역을 위해 기억해 주시는 형제, 자매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선교지에서, 임주영 목사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Meant for Good: Joseph, Forgiveness, and the End of Fear



Passage: Genesis 50: 15-21

Date: August 16, 2026

Pastor: Dong Suk Chung

Throughout this series on Genesis, Jacob represents the natural, fleshly human condition: ambitious, scheming, and constantly striving in self-reliance. His self-reliance caused him years of anxiety, fear, and severe hardships. Likewise, today we live according to our own inner personalities and thoughts, creating lives of anxiety and worry within environments built by those desires. Yet, God broke Jacob's hip, representing his self-dependence, transforming him into Israel. That a selfish, thieving fraudster like Jacob became a man who blessed even his enemies displays the transformation of a believer who has become a new creation in Christ. This shows how God molds fragile "earthen vessels" like us to hold the priceless treasure of His presence.

Where Jacob represents the inner transformation of the believer, **Joseph** foreshadows Jesus Christ in His divine authority and rule. Through Joseph's life, God demonstrates His absolute sovereignty by taking events that other people intended for harm and turning them into the way for global salvation.

When their father Jacob passed away, Joseph's brothers worried that without their father, Joseph would hold a grudge and pay them back for throwing him into slavery. They sent a message asking for forgiveness and bowed before Joseph, offering to be his servants.

When Joseph heard their words, he wept because his brothers still doubted his love and lived in guilt, unable to grasp how complete his forgiveness truly was. Joseph comforted them, saying:

"Do not fear, for am I in the place of God? As for you, you meant evil against me, but God meant it for good, to bring it about that many people should be kept alive, as they are today. So do not fear;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little ones." [Genesis 50:19-21]

This passage highlights the difference between living under the spirit of the Law versus living under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he reason we fail to fully trust God and live with lingering guilt is that we ate the fruit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nd put ourselves in God's position. It is the work of Satan that makes us think that we are the masters of our own thoughts, judgments, and feelings, which fills us with the

poison of acting as a false god in our lives. Consequently, we keep trying to carry the worries and anxieties that rightly belong to God, and fail to enjoy His rest. The way to overcome this is to yield ourselves daily to death on the cross. As the apostle Paul confessed, "I die daily": when we surrender ourselves and our anxieties and return to our original place as created beings and stop trying to become the Creator, true freedom and peace enter our lives.

Many believers live like Joseph's brothers, constantly fearing judgment and doubting whether God has truly forgiven their past mistakes. Most conflicts between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even within the church, arise from human misunderstandings. When someone wrongs or hurts us, rather than reacting in anger, realize it is God's way to reveal the hidden malice and ego still inside us—which helps us to bring it to the cross and leads to true reconciliation and a genuine church community. When we view difficult situations through the lens of the cross, we see that God uses these trials to refine our spirit and crucify our self-will.

Spiritual maturity is a journey of continuous growth. Just as Jesus restored a blind man's sight in stages, our spiritual eyes are opened gradually, leading us to deeper spiritual understanding. Initial faith saves our spirit (*justification*), but walking daily with the Holy Spirit transforms our character and thoughts (*sanctification*).

As our experience of God's Word becoming real in life increases progressively, the freedom we enjoy grows deeper and wider over time. Salvation does not stop at our spirits being saved and receiving forgiveness of sins. When we come to believe that Jesus is our true bread and practical supply in every moment of life, we experience the resolution of not only spiritual matters, but also all daily and physical life problems.

As we yield our worries and self-will to the cross, Christ lives through us. This enables us to speak words of comfort, extend genuine grace, and nourish others just as Joseph did.

So think about how you're living: are you still lingering under the fears you had in the past or are you walking in the freedom of Christ's finished work on the cross? Just as news of liberation after a war brings immediate freedom whether the citizens feel liberated or not, that is the truth and a fact. In the same way, Christ has accomplished complete salvation for us. Let us lay down our anxieties and trust that God is orchestrating all things for His ultimate good.

심나소식

나성교회



심나교회

8월 30일 2026년

NASUNGCHURCH.NET

122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50장 15-21절

날짜: 8월 16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진리의 씨앗으로 시작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결국 죽음과 입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셨으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귀가 어떤 계획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육신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은 야곱으로, 그는 야심이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다투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으며,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속이고 속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욕심과 생각이 만든 현실에는 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자기가 안에 가지고 있는 성격과 생각대로 살아가며, 그 소원대로 만들어진 환경 안에서 근심과 걱정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집이 매우 센 야곱의 환도 뼈를 치시고 밤새 싸우며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기적이고 탈취만 알던 사기꾼 야곱이 원수에게까지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성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야곱이라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

양대로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요셉은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항상 야곱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자 아들로서, 겉은 사람이나 속은 하나님이신 신기하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라며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십자가로 다스리는 자가 되셨으며,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표현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정쩡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판단, 느낌을 주인 삼는 것이 곧 사탄의 역사이며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이라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땅히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염려와 근심을 피조물인 우리가 짊어지며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를 이기는 길은 매일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듯, 말씀에 반대되는 내 자아와 염려를 죽음으로 넘길 때 내 안의 주님이 살아서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나를 포기하고 피조물의 원위치로 돌아갈 때 참된 자유와 부활의 소망이 임하며, 육신의 죽음조차 죽음으로 생각지 않고 잠자는 것으로 여길 만큼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죽은 뒤 형들은 보복을 두려워하며 요셉 앞에 엎드려 종이 되겠다고 했으나,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자녀까지 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은 은혜의 아들 시대가 찾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미 완벽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이나 상처를 줄 때 분노하기보다 내 안의 미움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의 연출임을 깨닫고 십자가로 가져갈 때 화해와 참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 한 시간의 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험도 점차 늘어납니다. 구원은 단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간 소 식

-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주 한국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사역과 여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에는 9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교회 한글학교가 9월 13일부터 매주일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로비에 준비된 한글학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과 방명석 형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org>

information@nasungchurch.org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윤성한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와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 | |
|-----------------|---|
| 장금숙 집사 | 교통사고로 오른쪽 손목 골절상 (6주 진단)을 입어 치료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신아영 사모 | 자궁선근증으로 인하여 자궁을 적출(개복)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김양희 집사 (한나선교회) |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최희정 집사 (한나선교회) |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김옥경 집사 (한나선교회)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김현숙B 집사 (2여선교회)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정신자 집사 (한나선교회) |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3남선교회)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 | |
|-------------------|---|
| 김묘자 권사 (모세선교회) | 폐암 수술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료 진행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송종철 장로 (모세선교회) |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김세훈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현숙 권사 딸). |
| 미리암 리 (에스더선교회) |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김학철 목사님 |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
| 이시용 장로 (모세선교회) |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 오른쪽 어깨 탈골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 감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 무릎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